# 어느 "스님교수"의 교훈

高 錫 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막기술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필자가 미국에서 학위(Rutgers Univ. 재료공학)를 마치고, 일본에 조교수로 교토대학 전자공학부에 근무하고 있을 때, 과학이란 학문 이외에 정신적으로 나의 인생 철학에 영향을 준 동료 조교수 기강 다카오까(高岡 義寬)선생이 있었다. 그는 불교의 스님이며 조그마한 절의 주지이자 자기연구에 몰두하는 학자이다. 그의 아버지 또한 큰절의 스님이고 네 아들 모두 각자의 절을 소유하고 부처의 깨달음을 알고자 수양을 하는 정말 불교의 집안에서 태어난 전자공학과 조교수이다.

산업계 인사들에게 기술 및 기술의 응용 분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필자(오른쪽)

다시 말하면 반도체 재료를 연구하며 끊임없이 자기자신을 깨우치려는 일본에서도 흔하지 않는 과학자였다. 그런 그가 함께 근무하는 나에게 많은 자연의 진리를, 단지 내 주위에서도 일어나는 단순한 것처럼 가르쳐 주었다. 그 실험실의 책임 교수는 야마다 이사오(山田 公)로 우리의 이온빔 연구분야에선 자기 나름대로의 반도체재료 제조기법도 가지고 있고 해외출장과 그의 실험실이 생활의 중심일 정도로 열심히 일한다. 해외출장 후에도 직접 실험실로 출근하여 이어질 실험과 학회 활동을 정리하곤 하는 정말 열성적인 학구파 교수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나는 미국생활에 젖어 있어서 가족중심의 생활과 학위를 가졌다는 조그마한 자만심에 느슨한 마음으로 인생을 즐기며 연구한다는 생각에 그의 열성적인 학문생활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高岡조교수에게 물었다. "왜 山田선생은 저렇게 가족생활을 마다하며 열성적으로 연구에 몰두하지?" 하며 이해할 수 없는듯한 질문을 그에게 던졌다.

그때 高岡선생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해주었고 요즘에 와서야 그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과학의 진리탐구는 어찌 보면 과학이라는 학문 뒤에 있는
나를 보게하고 나를 방황하지 않게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인지도 모르겠다.
학문에서 얻어지는 자기성취가 자기의 학문을 이끌고
이것이 자기의 종교라는 학문과도 많이 일치하는 느낌이 든다.
나는 요즘 새로운 전환기에 서 있다.
내가 개발한 표면처리연구를 실생활에 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P&I를 설립했다.
나는 새로 설립한 P&I가 세계 속의 벤처기업이 되도록 기도를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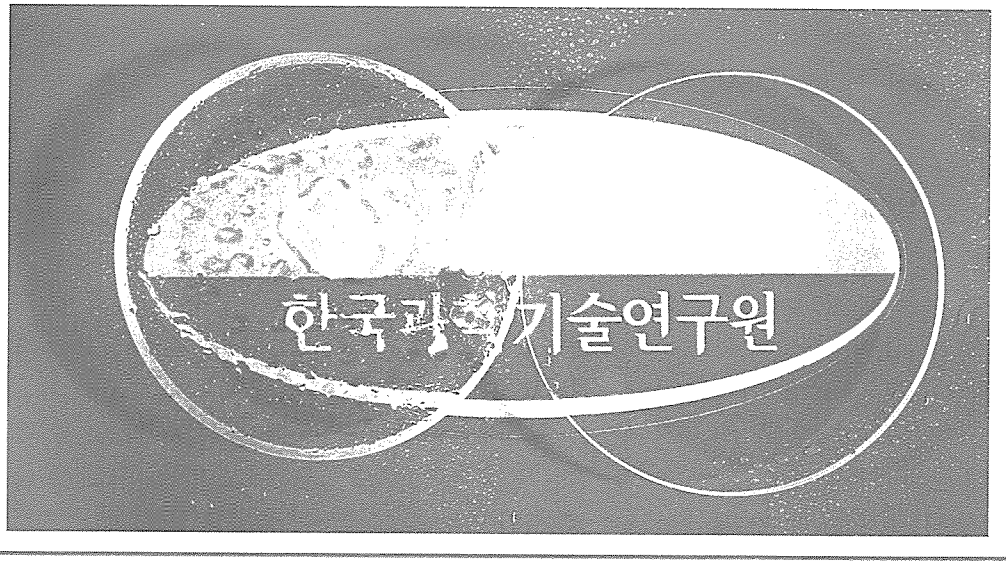
"山田선생의 종교는 자기전공인 이온빔이기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연구에 몰두하며 자기의 연구를 통하여 자기철학과 신념 및 생활신조를 만듭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기는 "학문에서도 뛰어난 업적도 없고 부처님의 말씀도 이해하기에 아직도 먼 돌팔이 중이요, 돌팔이 과학자입니다."라고 하며 스스로를 낮추며 방황하는 자기가 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 "연구에 몰두하면 그것이 바로 종교"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나약함을 느낄 때나 어려움에 처할 경우 무엇인가를 믿어 도움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너무도 복잡한 규칙 아닌 규칙 속의 세상에서 하찮은 자신의 존재를 보게 될 때, 거대하면서도 섬세한 이 우주만물이 규칙을 가지고 움직일 때 우리 자신은 그저 점점 더 왜소해지는 느낌이며 세상에 존재하는 미물중의 하나일 뿐이란 존재를 재확인하게 된다. 그러기에 그 동안 너무도 많은 구원자들이 있으며, 하물며 내일의 종말을 예언하며 갑자기 나타나는 구원자도 많았다. 그들 또한 불확실한 세상 속의 우리에게 잠시나마 구원의 손길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나를 돌이켜 보면 나의 믿음에 대하여 너무도 많이 물어보았지만 나는 뚜렷하게 무엇이 나의 믿음인지 말하기가 힘이 든다. 교회도 가보고 천주교 성당도 가보고 절에 가서 부처님께 나의 소원을 빌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믿




일반 상용렌즈(왼쪽)와 이온빔 처리를 통한 친수화된 렌즈(오른쪽)

음에 대한 나의 의구심은 더욱 커져만 가고 나의 존재와 우주의 존재, 생명의 신비함에 도무지 궁금증을 해소하긴 요원해 보인다.

그런데 요즘 나는 나의 연구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정말 진리탐구는 끝이 없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다시금 나의 존재에 자만이란 단어는 찾을 수가 없게 한다. 지금의 나의 연구결과가 어디서 왔는지 찾으려 시도하면 할수록 더욱 나에게 대답하기 힘든 답들만을 내게 던져준다. 하지만 나의 지금 연구분야가 그래도 나의 믿음인 것처럼 나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다. 또한 나의 인생철학과 도덕을 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느낌이다. 응용학문이든 순수학문이든 학문은 하나로 통하는 느낌이다. 즉 나의 연구결과는 결국에는 내가 남의 도움을 받아 그에 대한 해답을 풀어야하고 그러한 풀어가는 과정이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삶이며 일부나마 인류에 기여할 때 인류가 나를 포용하게 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또한 각각의 회사에서, 사회에서 미친 사람처럼 자기 일에 몰두하는 많은 사람들을 접할 때 그들은 분명 자기 분야의 전공을 가진 것이고 이런 자기전공이 단순히 대학에서 수여하면서 생긴 박사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수준 높은 철학자들이라 생각된다. 소위 현정부가 찾는 지식인들이라 생각된다.

과학의 진리탐구는 어찌 보면 과학이라는 학문 뒤에 있는 나를 보게 하고, 나를 방황하지 않게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인지도 모르겠다. 또한 학문에서 얻는 자기성취가 자기의 학문을 이끌고 이것이 자기의 종교라는 학문과도 많이 일치하는 느낌이 든다.

## 내가 개발한 기술로 벤처기업 설립

그런데 나는 요즘 새로운 전환기에 와있다. 내가 개발한 표면처리 연구결과들을 산업체에 기술이전도 하고, 소위 요즘 유행하는 벤처회사들도 계속 설립해 나가고 있다. 내가 개발한 표면처리 연구를 실생활에 직접 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P&I(Plasma and Ion Beam)를 설립하였다. 회사를 설립하면서 회사설립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수성가하신 사업가들로부터 그분들이 지난 시절 겪었던 여러 경험과 회사의 경영철학도 함께 배우고 있다. 그분들 또한 자기의 사업영역과 자기의 경영철학이 합쳐진 그들만의 사업인양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 분야에서 선두를 이루며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다. 약한 자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게 강하라, 외부에서 결코 나의 연구원들을 헐뜯지 마라, 나의 연구원들에게 결코 나약함을 보이지 마라,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게 하라,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겐 항상 그 고마움을 잊지 마라, 계획은 항상 최고로 어려울 때를 가정하여 세워라 등등 많은 것을 명심하게 하신다.

이제 여러 어려움과 험한 세상에 P&I호를 출범하면서 나는 내 자신만의 하느님께 소원을 빌며 미래의 나를 설계한다. 어찌 보면 내 자신 스스로 나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기도이며 기존에 한국에서 존재하는 P&I가 아니라 세계 속에 P&I가 되게 하기 위한 바램의 기도이다.

"하느님 ! 지금까지 저는 KIST라는 울타리의 보호막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앞으로 이 P&I라는 배를 거친 파도와 싸우며 저어가 세계 최고를 향하고 많은 기업을 돕고자하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의 표면처리 기술이 단순한 이름 모를 한 송이 야생화 같은 표면처리 기술이 아니라 한국산업에 기반이 되는 기초기술을 제공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주춧돌이 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저는 우리의 연구원들이 대한민국 내부의 다른 연구원들과의 연구결과를 경쟁하는 국지적인 연구원이 아닌 세계 속의 많은 석학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연구원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느님! 저의 연구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과 발전을 이룰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항상 겸손의 자세로 남을 대할 수 있게 하소서.

지금까지 저는 하느님의 뜻에 이르지는 못했던 삶이었지만 제 맘 속에 진작에 표현 못했던 바람은 항상 들어주셨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아옵니다." ST